

## 기쁨

660. 지금 교회는 매우 힘들고 풍요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이신 교회의 고통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쁨을 선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워 얻은 기쁨, 어두운 땅속 수 천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 미터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 오르는 물처럼 맑고 시원한 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661. 미소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소는 하느님이 계획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뜻에 온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미소는 한 영혼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어져 있음을 예상케 합니다.

662.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미소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미소가 그들에게 한 줄기 빛, 기쁨과 희망, 열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미소 안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섬세함과 온유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663. 마치 우리를 채워 줄 것 같지만 실상 공허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들에 열정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통 점령하고 있던 그 열정, 당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하느님의 순수한 영광에 대한 열정만을 품으십시오.

664. 사랑에 빠진 영혼이 기쁨으로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65. 교회는 마리아의 영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 사랑의 숨결로 우리를 따스하게 해주지 않으렵니까? 성모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작은 집은 기쁨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에서 그대 삶의 불을 땡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666. 항상 끊임없이 솟아나고 늘 가득한 열정의 저수지를 세상을 위해 쌓아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대의 삶이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믿습니까? 모든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대에게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열정을 갖고 나누어 줄 권리가 그대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667.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노래하는 이들, 등산가들, 드높은 이상을 열렬히 찾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투신하십시오!

668. 기쁨의 파종자가 되십시오. 아무데나 뿌리십시오.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뿌리십시오.

오... 열정을 다해, 사랑에 빠진 마음을 다해 뿌리십시오. 그대의 삶을 충동원하여 팔이 빠지도록 뿌리십시오. 무엇보다 열정과 영광과 기쁨을 뿌리십시오.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소중한 것들을 뿌리십시오.

669. 열정은 인류와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이 열정은 사랑에 빠진 영혼에게서 나옵니다. 이 영혼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을 밝히고, 일치를 심고, 평화의 선물이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670. 그대의 삶이 언제나 사랑을 전하는 감미로운 미소로 빛나게 하십시오.. .

671. 기쁨의 화신이 되고자 하는 그대 인생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그분의 길에 투신하십시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672. 시편 저 깊은 곳에 기쁨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신비를 충만하게 살기 위해, 먼저 그 신비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 안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 하십시오.

673. 신비의 심연을 날마다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축제에 초대 되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는 사랑의 축제, 열정과 기쁨의 축제입니다. 현세와 영원의 축제입니다.

674. 그대는 현란하고 요란스러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심오한 기쁨을 인류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과 열정과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그대가 가는 곳마다 늘 아름답게 울리는 종소리가 되십시오. 그 소리가 언제나 밝고 신선하고 기쁨에 넘치는 새벽 종 소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담한 색깔로 칠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의 팔레트를 보고 계십니다. 오직 사랑에 빠진 영혼만이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675.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시어 그 기쁨을 흐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르는 것은 사랑과 평화, 충만함과 만남이며 깨지지 않고 구김살 없는 기쁨과 만나는 것임을 나의 기쁨으로 생생하게 증거해 보이고 싶습니다.

676. 종은 언제나 기쁘게 울려 퍼지며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아름다운 상징이 아닌지요!

677.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고요하고 넘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대의 삶이 불이라면..., 사랑과 일치, 섬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678. 기쁨은 관상생활을 비추어 주고 양육시켜 줍니다. 또한 그를 더욱 아름답고 매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빛과 사랑을 주는 기쁨입니다.

679. 그대의 성소는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워 수선한 그대의 가난함은 상관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쁨의 씨를 뿌리는 분께 더욱 매력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대의 성소에 충실한 것입니다.

680. 생활 속에 사랑을 불어 넣는 열정이야말로 온갖 열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이렇게 할 때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681. 우리의 기쁨이 생명이라면 모든 이가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살아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생명과 기쁨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다면!

682. 하느님의 기쁨...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목숨을 바치며 길을 가는 것,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연인들의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가는 것, 온통 땀질 투성이의 가난한 모습이지만 행복하게 길을 가는 것... 그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가 그분께 의탁할 때 흐뭇해 하심을 알고 있기에... 이 부차적인 것을 모두 버려두고 사랑과 충만을 외치며 걸어 가는 것입니다.

683. 비옥한 대지보다 더 비옥하게 되어 항구한 미소와 세상을 밝히는 기쁨을 풍성하게 내어 주십시오.

684.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감도는 저 산 꼭대기까지 용감하게 오르십시오.

685. 낙천주의와 편안함 그리고 생명을 주는 기쁨, 일상의 삶에 맑고 명량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기쁨...

먹구름이 낀 날에는 햇빛이 되어주고, 타는 듯이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 되어 줍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해줍니다.

686.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강생과 겐세마니와 골고타의 신비에 보답하여 그대의 삶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과 생명을 바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687 예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당신의 기쁨, 저의 수도원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이 둘은 서로 같은 것이니까요. 저의 미소, 열린 마음, 열렬한 저의 사랑... 당신께 그 무엇도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미소 드리지 않는 날, 부끄러워 죽게 해주십시오.

688. 미소 지으십시오. 설사 죽도록 깨어지는 아픔이 따르다 할지라도 항상 미소 지으십시오. 그대의 미소 안에 사랑이신 그분과 맺어진 영원한 혼약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미소를 거부함은 그 영원한 혼인 잔치에 먹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689. 그 향구한 미소 안에 그대의 순교, 그대의 헌신과 성덕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대를 기다리십니다.

690. 미소는 마치 우리 눈짓으로 아멘, 알렐루야를 외치는 것보다도 같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 존재를 다하여 언제나 “예수님,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보내드리는 박수 갈채입니다.

왜 원하시는지. 무얼 원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691. 기뻐하십시오.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자매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692.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승리.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교회,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서 자라나는 성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부르셨으며 당신을 내게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하여 매일 매 순간 내어주고 계시다는 놀랍고도 신비스런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693. 자매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비결이 기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에 옮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재치 있고 편안하고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으며 맑고 순수하고 즐겁고 단순해야 합니다.

694.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이 내어 맡긴다

면 성령께서 그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과 희생 안에 자라나며 매일의 작은 죽음이 그의 양식이 됩니다. 기쁨은 자유의 나라에 자신의 장막을 칩니다.

작은 실오라기 하나가 기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695. 빛은 어디든지 들어가지만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에 어울리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분위기에든 자신을 맞추어 줄 압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도 같고 활짝 열린 미소와도 같으며 약속의 실현이자 약속의 실현을 고대하는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696. 지식의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의 손에 들려있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음악으로 가득 차 있어 건드리기만 해도 노래합니다. 심오한 기쁨과 낙천주의로 노래합니다. 생명과 사랑을, 하느님을 노래합니다.